이젠 캐내지 말고 갖다 심자

(이사야 62:1~12)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젠 캐내지 말고 갖다 심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젠 캐내지 말고 갖다 심자'

캐나다의 밴쿠버 앞바다에 빅토리아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7만 평 가까이 되는 부차트 가든(The Butchart Gardens)이라는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이었습니다. 1904년 석회석 채굴로 황폐화 된 폐광에 광업주의 부인 제니 부차트 여사가 작은 침상원(沈床園, sunken garden)을 만들게 됩니다. 주변 지면보다 한층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가라앉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 동해의 삼척이나 영월지역을 드라이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시멘트 공장이 많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잿빛으로 느껴질 정도로 삭막합니다. 석회석 광산이 있었던 빅토리아 섬도 곳곳에 웅덩이와 폐광의 흔적으로 삭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차트 부부가 전 세계의 꽃과 식물을 수집해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점점 확장되자 다섯 개의 주제로 분리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침상원이 있고 장미 정원, 이태리식 정원, 일본식 정원, 지중해식 정원으로 나누어진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이곳을 국가 역사유적지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석회석을 캐내던 광산이 폐광이 되자 꽃을 심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캐내는 방향에서 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폐광에 꽃을 심음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전혀 다른 두 세상이 교차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캐내는 방향에서 심는 방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이 가리키는 분은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의가 빛 같이,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이라는 말에서 의와 구원은 같은 내용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면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의 특징은 빛입니다. 빛의 성질은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빛은 막히면 막혔지 움츠러들지 않고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빛 같이 횃불 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시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개인과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온은 지구표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시온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이 만나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존재의미입니다.
시온의 번제단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선민들의 몸이 비록 시온에 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시온을 향함으로써 상번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이외의 세상과 밀착된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마음이 밀착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그리워하든지 싫어하든지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기쁨이나 불만이 생겨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밀착된 상태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밀착하기 위해서 마음을 시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시온의 번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죽이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양 한 마리가 다 태워져서 재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사는 항상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배우자 자녀 돈 원수 사업 등과 밀착된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상번제의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을 때에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빛과 횃불로 비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에 하늘기운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기운으로 차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무엇이든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늘기운으로 채워진 마음은 다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2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이라는 말에서 공의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라는 말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실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바뀌지 않더라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광산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배우자는 광산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광산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해내고 캐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녀도 광산이 됩니다. 자녀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무리 캐내도 나를 만족시킬 만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에게서 캐내다가 지쳐서 폐광이 되어버립니다.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어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야 맙니다. 법적으로 부부니까 그러려니 하고 두 폐광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광산에서 기쁨을 캐보려고 일평생을 뛰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지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지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칠 뿐입니다. 돈이 생겨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돈은 기쁨을 캘 수 없는 폐광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얻어 보려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잠깐입니다. 계속해서 캐내려 하지만 결국에는 폐광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삶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서 의가 빛 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시온의 성전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린 양을 죽이는 상번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 이외의 세상과 밀착된 마음을 아침과 저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밀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기운이 빛처럼 횃불처럼 내 마음에서 퍼져갑니다.

전에는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캐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기쁨을 배우자에게 심는 삶이 시작됩니다. 더는 기쁨을 캐낼 수 없는 폐광으로 여겼던 배우자에게 하늘기운을 심기 시작하자 정원이 됩니다. 석회석을 파내던 황량한 폐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상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서 기쁨을 캐내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옆집 아이는 서울대학에 갔는데 우리 자녀는 들어가지 못하자 실망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밀착되고 구원받은 자는 하늘기운을 내뿜는 존재가 됩니다. 폐광이 되어버린 자녀와의 관계가 하늘의 꽃을 심는 장소가 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 갑니다.
부차트 부인이 커다란 석회암 웅덩이에 처음으로 꽃 한 송이를 심었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캐내던 장소에 가져다 심는 정반대의 행동이 세상에서 가장 삭막하던 폐광이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캐내는 삶이라면 폐광처럼 황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생활 인간관계 건강 돈 명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내 몸을 이용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캐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자 몸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늘 기쁨이 내 마음을 통해 몸에도 전달되면 건강조차도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캐내려하지만 캐낼 수 없어서 괴로워하던 몸과,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몸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겠습니까?

이어서 본문 3~4절을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과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면류관이나 왕관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결과물들 중에서 내가 최고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황무지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번제단의 상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끊임없이 세상과 밀착된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밀착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최고로 여기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그녀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남성이 기뻐하는 여인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에게 기쁨을 캐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배우자는 폐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우자도 나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채굴하려 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세상 역시 나를 폐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랬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밀착되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손의 면류관과 왕관처럼 삼으시고 의의 빛과 구원의 횃불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필요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밀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세상에도 하늘기운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정원처럼 내 삶의 주변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부차트 가든은 입장료도 30,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은 일 년에 백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상번제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건강 돈 승진 취직 사업문제 등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목회가 들어차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목회가 들어찬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명은 자녀로 들어찬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회현장도 자녀도 광산이 아닌 정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에 대해 죽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늘기쁨이라는 꽃을 심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하늘 정원이 됩니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서로를 폐광으로 여기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늘의 꽃으로 피우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을 닦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닦달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해결해주세요, 저것을 해결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과 밀착된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의 꽃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더는 내 기쁨을 캐내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기운은 의의 빛이 되고 구원의 횃불이 되어서 내게 들어와 차오르고 이윽고 나를 통해서 발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업장은 부차트 가든처럼 되어갑니다. 행여나 다시 사업에서 기쁨을 캐내려 한다면 사업장은 다시 폐광이 될 것입니다.
캐내는 삶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많이 벌릴지라도 참 기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돈은 나오지만 정작 바라는 기쁨과 만족은 나오지 않는 폐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은 사업장이 그야말로 하늘 꽃을 심고 하늘 만족을 심는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광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캐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이 될 때에 하늘로써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마음에서 의가 빛 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캐내고 끌어당기는 삶은 폐광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주는 하늘 정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우리의 전 인격을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셔서 하늘기운이 의의 빛처럼 횃불처럼 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캐냄으로 폐광이 되어버린 장소마다 하늘의 꽃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늘 정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